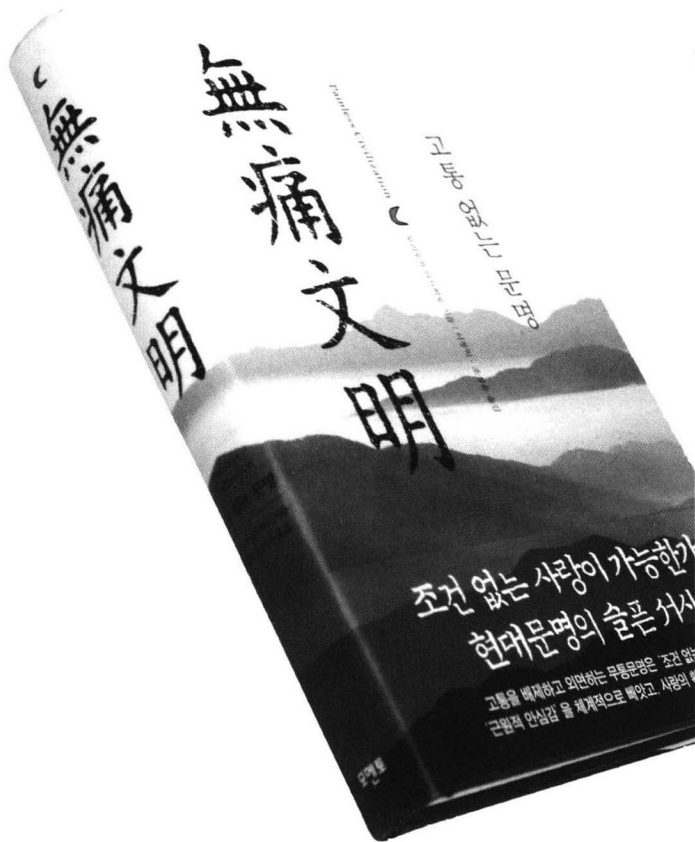


고통이 비추는 삶

《무통문명》의 저자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문명의 역사를 고통의 내면화의 역사로 보고 있다. 온통 고통을 예방하는 데만 몰두하게 된 나머지 인간은 마침내 생의 기쁨까지도 모두 고통의 예방에 저당 잡혔다는 말이다. 무통문명, 즉 도래할 고통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또는 고통을 하나의 취미나 선택이 되게끔 만드는 문명 속에서, 우리들은 양수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선천적 장애 여부를 '미리 검사해' 선택적 출산을 하거나 혹은 '미리 짜여진' 모형을 보장하는 놀이동산을 찾아 아슬아슬한 놀이 기구에 매달려서 좋다고 소리를 질러댄다.

하지만 가능한 한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파국을 초래하지 않는 한에서 적당한 스릴을 즐기려는 것 또한 인간 고유의 심리가 아닐까?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니 바로 그 지점에서 사유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종교서가 아니다. 저자는 금욕 정신이나 고매한 수도승 같은 인간형을 그리고 있지 않다. “신체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는 이 지점, ‘미운 아이보다는 귀여운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철학은 시작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예고 없이 찾아드는 고통으로서의 '죽음의 공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죽음의 공포”를 수련에 의해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고매한 수도승으로서가 아닌, 그리고 '저 세상'이나 '영원한 생명'에 매달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것도 아닌, 단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의 인생만을 최후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평범한 전사로서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싶은 것이다.”

다가올 고통살인 사건을 현실적으로 미리 제거하는 미래 사회를 그린 스티븐 스펀버그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시스템보다는 인간의 자유 의지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누구도 이 영화를 '살인 사건쯤은 참고 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라고 왜곡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집어삼킨 거대한 무통문명의 소용돌이를 '무통격류'라 표현한 저자의 전언

● 이 글을 쓴 손유경은 문화기획집단 <퍼스펙>의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대담한 책임기> <인텔리겐차>의 공저자이다.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외국어대 강사로 있다.

을 '안 아프겠다는데 어쩔 텐가' 라고 풀이할 수는 물론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대부분은 양수 검사와 기형아 검사를 통해 '비장애아' 라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비로소 선택된 아이들일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미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조건부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는 원초적 감각이 사회 심층부에 축적되어 간다는 데" 있다. 조건에 부합했기에 축복받았다는 인식은 '조건 없는 사랑' 의 감각,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앗아간다. 여기서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장애아와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고통은 소중한 것이니 한번 참아 보라' 고 훈계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는 결의의 감각을 앗아가는 무통문명의 처사를 '잔혹하다'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피할 수 있는 건 이미 고통이 아니기에 고통은 곧 '예기치 못함' 의 감각과도 관련된다. 예기치 못한 만남, 예기치 못한 헤어짐, 그리고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죽음. 하지만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지구는 고통과 죽음의 태양이 비출 때에만 빛을 발하는 별임을 우리는 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언젠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책과 글에 대한, 그리고 시간에 대한 애끓는 애정이 생길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본다. 혹은 고통스러웠던 어떤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은 어떻게 해서도 결코 그때를 다시 살 수 없다는 나의 유한성 때문에 더욱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형수다. ...우리는 연령이나 경우와는 관계없이 모두 삶의 풍요와 허무함이 응축된 이와 같은 '지금' 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공포에 떠는 삶. 한없이 사랑스러운 삶."

모리오카 마사히로가 '만남' 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에서 내가 별스런 감동을 느낀 이유는, 예기치 못함-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다-을 견디지 못하는 무통문명 속 인간에게는 '만남' 만이 진정한 타인이라는 그의 한 마디 때문이었다. 예기치 않은 고통이 없다면 예기치 않은 기쁨도 없다는 것. 고통을 예방하는 일은 나에게서 고통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능성을 빼앗는다는 것.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나를 노려보는 사람, 예기치 않게 찾아와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만이-저자의 표현을 빌자면-'나의 심층적 아이덴티티' 를 내 눈앞에 들이미는 사건이다. "내가 서 있는 틈을 목숨 걸고 깨뜨리기 위해 오는 타인만이 나의 눈가리개 구조를 인간 존재 그 자체로 밝히며 나의 심층 아이덴티티를 눈앞에 가차 없이 들이댄다."

예고 없이 나에게 바짝 다가서 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사람들. 혹은 사건들. 그것들에 대한 나의 미움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폭로되었다는 당혹감과 수치심의 다른 이름들을 태다. 하지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적 원인을 없애 버리면 눈앞의 고통이 사라질 뿐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것은 '안도감' 에 불과하다. '생명의 기쁨' 은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가면서 상대방과 철저히 상대하는" 와중에 느닷없이 찾아온다.

상대방과 철저히 상대하기. 가혹한 운명의 신이 되었던 유치한 짬을 날리는 악동이 되었던, 고통에 취약하기 지극한 내가 지금껏 '만났던' 혹은 '상대했던'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무통문명》

모리오카 마사히로 지음 | 이창익, 조성윤 옮김 | 모멘토 | 420쪽 | 값 18,000원